

보라 새 일을

이길로

보라 새 일을 - 행하시리니 -

이제 - 끝 나 - 타 내 - 리 라 -

주를 위 하여 - 거으신 백성 -

주의 찬 송 - 부르게 되 - 리 -

광야의 물숫 - 아 나 리라 -

사막에 꽃피 - 어 나리 -

이전 일들을 - 너희는 기억지 말며 -

옛적 일들을 - 생각지도 말 - 라 -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억되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설날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1. 너희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은 안하면 됩니다.

1) 기억하지 말라

기억한다는 것은 이전의 일들, 과거의 일들을 묵상하고 회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그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들,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전 일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시발점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안되었던 것, 실패했던 것, 잘 안되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은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옛날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옛날의 일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내 생각이 이전의 일들, 육신의 일들, 세상의 일들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지배받지 마십시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되는대로 살게 됩니다. 되는대로 사는 것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함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옛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1) 새 일을 행하심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역사를 나의 삶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때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옛적 일들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와 육신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억과 생각에 매여있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과거에 살아왔던 틀과 생각과 기억들로 인해서 습관처럼 굳어진 내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 지금 나타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과거의 기억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기적을 행하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요 사막에 강이 흘러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과 괴로움, 길이 없는 혼란과 고통의 삶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올 길이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 길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은 어떠한 생명도 살수 없는 곳, 주리고 목마른 곳입니다. 세상에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생명체가 죽어나가는 죽음의 땅과 같은 나의 영혼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올해는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사막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과 해 아래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편곡: 3:13, 고전 15:9, 고후 4:16~5:5
blog.naver.com/suneum0691

Albert E. Brumley 1937(1905~1977)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서도 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